

영혼 없는 공직자



이 정 혁 역
西村브리핑

지난 1994년 8월에 개봉된 해리스 포드 주연의 ‘긴급명령’은 법을 무시한 국가 최고 권력자에 맞서 주인공 잭 라이언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박진감 있게 그린 영화다. 영화는 오랫동안 마약 조직에 관여해 거액을 벌어들인 대통령의 막역한 친구가 콜롬비아의 마약 대부에게 살해당하면서 시작된다. 마약 퇴치라는 명분 속에 친구가 남긴 마약상들의 막대한 자금을 몰수할 계획으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미사일까지 동원해 콜롬비아에 불법적인 테러 행위를 저지른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CIA 국장 서리 잭 라이언은 끈질긴 추적 끝에 대통령과 측근들의 추악한 음모를 밝혀 낸다. 대통령은 잭 라이언을 회유하기 위해 “더 이상의 국가적 스캔들은 없어야 한다”고 명령하지만 잭 라이언은 “전 춤을 안 춥니다”라는 말로 대통령의 회유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박차고 나간다. 그 뒤 국회 상원에 출석해 대통령의 비리를 고발한다. 잭 라이언이 보여 준 결연한 행동은 공직자들이 당연히 갖추어야 할 ‘노블레스 오

블리주’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 대작오적 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은 4월 4일 헌법재판관들이 일지된 견해로 대통령령을 파면함으로써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진 충격과 휴유증은 완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되는 과정에서 내각 구성원인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국정원장, 장관 등 나라를 끌고 가는 국무위원들이 보여준 행태다. 실망감을 더해준 행보가 안타까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뜻이라면 ‘묻지마 국정’이 돼 버리는 건 정상이 아니다. 어떻게 대통령 주변에 에스맨만 있고 부당하다고 직언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불건왕조 시대’에도 없던 상황이다. 한 고위 관료 출신 인사는 “작금의 상황은 공무원이 영혼 없이 눈치만 봤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것”이라며 혀를 찼다. 특히 경제 관료 출신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모호한 처신으로 정국 혼란을 가중시켰다. 한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 직후나 그 이후, 그리고 현재의 대선 출마설에도 이

도 저도 아닌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욕이 아닐 수 없다. 최 부총리는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재테크 일환으로 미국 국채에 거액을 투자하기까지 했다. 공직자중에서도 경제 관료는 한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이었고,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요약되는 공직자 자세를 통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그건 지난 일이고, 현재 상황은 성장 주도 세력이 아니고 기회주의 처신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공직자가 인사가 있는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통령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가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봉급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올바른 정책을 수행하는 노고에 대한 반대급부이다. 이러한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책상머리에 앉아 눈치만 보고 있는 공직자는 이미 공직자가 아니다. 그러려고 공직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명령에 복종하기보다 정치적 ‘좌고우면’ 없이 불법적 계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사표를 제출한 류 혁 법무부 전 검찰관이나 부당한 명령을 무시한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의 기개야말로 영화 속 잭 라이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훈훈하다.

/ljin@metroseoul.co.kr

나날이 거세지는 C커머스 공세, 대응책이 없다



기 자 수 첩
안 재 선
(유통&라이프부)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무역 전쟁의 불똥이 내수 시장에도 튀고 있다. 바로 이커머스 업체다. 한국 온라인 시장은 중국 C커머스 기업에게 ‘뽕 대신 닭’ 시장이 돼버렸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미국이 내달부터 800달러 미만 중국 수입품에 120%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하자, 중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을 대신할 수출 시장으로 한국을 택한 것이다. 테무 사례만 봐도 상황은 명확하다. 테무는 국내에 진출하면서 기업간거래(B2

B) 플랫폼으로 처음 사업을 운영하다, 이내 곧 오픈마켓을 열더니 직접 플래폼 판매자(셀러)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국내 물류센터를 직접 세워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이 C커머스 기업들이 밀고 들어오는데, 국내 이커머스 기업에게는 그럴듯한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은 C커머스까지 가세한 경쟁 포화 시장에서 자신의 특징점을 살리는데 고민하지 않고, 배송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쿠팡의 배송 서비스를 통한 성공모델을 쫓아가기 바쁜 상황이다. 그렇게 현재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은 너도나도 앓다튀 배송권역을 늘리고, 택배사와 협업체 한 시간이라도 더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포화된 시장에는 둔화 지점이 도래하기 마련이다. 모두가 빠른 배송 서비스라는 하나의 길로만 향해 달리게 된다면, 국내로 밀고 들어오는 C커머스에 제대로 대응해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이커머스 입점 제품의 질 확대, 카테고리의 다양성 등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특히, C커머스 발 유탄물질 검출 등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기업의 행위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제대로 된 물건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wotis4187@

오늘의 운세4월 25일 (음 3월 28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마음은 불만이 있다고 마구 행동하면 본인 발등만. 48년생 처음부터 가진데 없고 기대할 게 없다. 60년생 황금색이 행운을. 72년생 아직도 일인당백(一人當百)을 한다. 84년생 적당한 인재를 적당한 자리에 배치하다.

 소

37년생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 49년생 돈 문제로 이혼 위기. 61년생 결심이 사흘 못 간다. 73년생 불날 달밤은 천금의 값어치가 있다네. 85년생 고학력임에도 생활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불성실의 결과.

 토끼

38년생 입과 입을 속을 청결히만 해도 좋은 기를 받는다. 50년생 아간 음주는 종일 하루를 힘들게 한다. 62년생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한다. 74년생 뛰어난 작품이 드디어 태어난다. 86년생 행운은 균형과 조화를 중시한다.

 토끼

39년생 자두연기(煮豆燃箕)라 서글프다. 51년생 수면을 충분히 취해서 운기를 좋게 만들어보라. 63년생 연인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다. 75년생 은덕을 입으면 보답을 해아 내 도리. 87년생 살의 기운이니 먼 길에서 운전조심.

 양

40년생 내가 한 일은 내가 받는다. 52년생 나쁜 기운이 있을 때는 외출은 삼가. 64년생 생 바람은 손에 잡지 않으나 손재로 이어질 수 있다. 76년생 꽃에는 맑은 향기가 있고 달은 희미하게. 88년생 죽느냐 사느냐에서 절박하다.

 뱀

41년생 주변의 신뢰를 잃게 되니 말조심. 53년생 얼굴빛이 어두우니 음식도 조심해서 먹도록. 65년생 개미구멍이 점점 커져 마침내 큰 독이 무너진다. 77년생 웃는 것은 천금의 가치가 있다. 89년생 상대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자.

 말

42년생 복권이 되려면 복권을 먼저 사도록. 54년생 정신을 한곳에 모으면 이루어진다. 66년생 우물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답답한 일진. 78년생 직원 중에 도둑이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흐리듯. 90년생 초저녁 음주는 조심하도록.

 양

43년생 옹디옹디는 살얼음 위를 걷는 심정으로 전전긍긍. 55년생 수성(水性)이라 능적 기운이 탁월. 67년생 화장이 짙어지는 일진. 79년생 한 가지 일을 보게 되면 미리 짐작이 간다. 91년생 순간의 감정과 기분으로 약속하지 말자.

 원숭이

44년생 집안 문제는 오전에 슬프고 이른 오후에 기쁨이 있다. 56년생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 정도. 68년생 내 능력은 새발의 피로 적다. 80년생 3세 소식을 몹시 애타게 기다린다. 92년생 규칙적인 생활로 젊어서부터 건강 유지.

 닭

45년생 앞의 실수를 슬퍼하지 말고 재조명하는 거울로 삼자. 57년생 스승은 인품이 나 글이 아름다우니 존경. 69년생 정서 교육도 중요시. 81년생 한바탕의 꿈처럼 헛된 인생이 아니길. 93년생 오늘 귀인은 전생애 이미 맺은 인연이다.

 돼지

46년생 사업의 장구한 이익을 위해 신용을. 58년생 남의 단점을 바라보다 내 단점도 찾자. 70년생 이사는 다음 날로. 82년생 즐거움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같이 반응한다. 94년생 본디 선행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

 돼지

47년생 늘 전화위복이 있는 것도 인생사. 59년생 상대방의 나쁜 계락을 미리 알고 대처. 71년생 허상을 통해서라도 이성에게 과시하고 싶다. 83년생 마음이 한결같으면 어떤 일도 해낸다. 95년생 처가와 남의 사돈맥을 비교하는 일이 없도록.

김상회의四季 별과 나



지구는 과학자들의 연구로는 약 46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한다.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생긴 에너지가 지각을 유동시킨 관계로 초기 지구의 지각을 모두 파괴해 버렸기 때문에 지구의 나이를 알 수는 없으나, 여러 과학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초기 지구의 연대를 추측해 낸 것이다. 지구가 속한 태양계를 벗어난 저 멀리 은하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별들이 반짝인다. 특히 선조들이 귀히 여기는 별인 북극성과 북두칠성은 큰곰자리에 위치한다. 100광년만큼 거리가 멀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북극성은 최소한 빛의 속도로 이미 백년전에 ‘반짝’ 하고 빛난 것을 오늘에야 보는 것이다. 이미 백년전에 빛났던 별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들이며 소원을 비는 것이다. 별은 신비롭고 별과 마음을 나누고 교감한다. 지구도 다른 행성이나 우주에서 보면 역시 빛나는 별이다. 생명 있는 유정과 무정인 만물이 서로 융화하며 존재하는 아름다운 별이다. 저 멀리 백 광년 이백 광년 떨어진 별들과 지구별 역시 교감을 하며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그 에너지를 굳이 자기장이나 중력이나 표현할 필요가 없다. 순수시인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이 떠오른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봅니다.” 별은 시인에게 그 자체로 시가 되고 그리움이 되고 기원이 된다. 생명이 잉태될 때는 태양에 해당하는 아버지의 정(精)과 달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난(卵)에 별의 기운이 자리 잡아 삼위일체가 열 달을 어머니의 태(胎) 안에서 품어져 태어난다. 나의 정체성을 있게 한 그 별은 내게 계속 속삭인다. 거짓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고, 네 마음속의 그 빛은 별과 나는 그 자체로 하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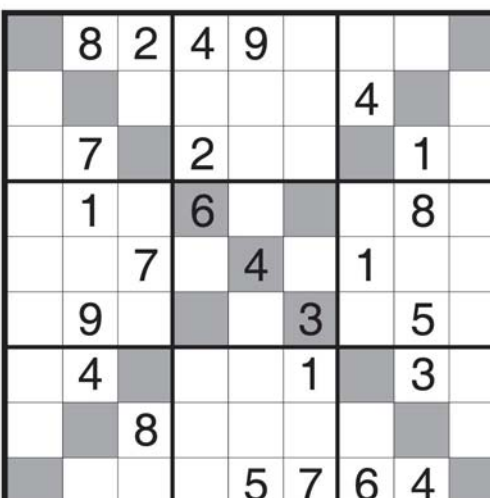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6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6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석하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